

건축사의 창작활동에 있어서



☆ 국가 도시 개발계획에 발맞추어 건축 부문에서도 장족의 진보를 ☆

☆ 하고 있는 차제에 우리 건축사들의 사회에서의 위치와 또 사회에서 ☆

☆ 우리 건축사들이 당면하고 있는 중대한 과제가 되리라고 보는 건축사 ☆

☆ 의 창작활동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과 급변하는 현 세계의 조류 ☆

☆ 에 건축사들이 창조할 현대건축의 양식에 대해서 좌담회를 가졌음 ☆

사회(김진천) 오늘 이 좌담회에서는 최근 빈번히 대두되고 있는 건축사의 업무 중에서 법적, 사회적 지위 및 창작활동, 현대건축의 나아갈 길 등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의 진지한 토의와 좋은 의견의 발표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새로운 느낌점, 제의하고 싶은 것들을 기탄 없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사의 창작활동에 있어서의 법적인 의의에 관하여 한 선생님 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즉 국 가시립을 거쳐서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받았는데 법적으로는 보장을 받았으나 사회적으로는 아직 별로 보장이 없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

한정섭 아직도 초창기니까 여러가지로 만족지 못한 점도 많을 것이고 우리를 자체에서도 앞으로 반성하고 자숙하고 정리해야 할 일이 많다고 봅니다. 우선



출발의 시점에서 건축사법이 생겨야 했고 관계부처에서 자격을 부여 받았으니 이 사실 자체가 진일보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회적 지위, 직업보장, 경제적인 수익 문제 등 앞으로 할일이 많은데 전반적으로

얘기해서 우리들 자신이 많은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사회 앞으로 그러한 점에서는 아직 초창기이니 만큼 건축사 서로가 노력하면 많은 진전이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최선생님은 이 점에 관해 의견이 어떠신지요.

사회의 불신 해소에 노력을.....

최창규 건축사법이 생겨서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법적

좌담회 : 현대 건축의 양식

때 : 1969년 5월 8일

장소 : 본협회 회의실

사 회 :	김	진	천 (편찬위원회 위원장)
참 석 자 :	김	만	성 (연합건축 소장)
	박	윤	성 (고려대학교 교수)
	유	정	철 (삼육건축연구소 소장)
	윤	정	섭 (서울공대 교수)
	이	정	덕 (고려대학교 교수)
	최	창	규 (신진건축설계사무소 소장)
	한	정	섭 (주택은행 기술부장)
함	정	호 (함정호건축설계사무소 소장)	

(가나다순)

고 건축이 우리의 전통일수 있는가?

인 권한을 부여 받았는데도 불신을 받고 있는데, 이런 예로는 의사, 변호사 등이 있는데 그들 중에 유독 건축사가 가장 불신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 자신부터 자숙을 해야 하겠지만 사회에서 불신을 받는 것이 사회에서 건축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부족한 데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사회에 대해서 계몽, 설득한다는 것도 시간적으로나 여러가지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법으로는 분명히 보장을 받고 있는데도 불신을 받으니 좀 불쾌한 생각이 나는군요.

한정섭 다른 선진국에 비교해서 우리나라처럼 건축사가 루메접 받는 곳도 드문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역시 우리나라는 후진성을 못 면하고 있는데, 현실점에 있어서 우리나라 건축사의 임무는 선진국의 건축사들 보다 임무가 한가지 더 있다고 봅니다. 전통 있는 선진국 건축사들은 자기의 건축에 대한 기술을 향상시키고 책임을 다하는데 그 임무가 끝나겠지만, 후진성을 못면한 우리나라 건축사들은 그것 이외에 과연 기술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술자 아닌 위정자들이나 실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

리들이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건축법에서 법자체에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이 불합리한 점을 우리들이 고쳐나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김만성 건축법 개정 관계도 우리 자신이 해야하며 사회적 의의로 보아도 지금은 과도기니 PR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우리가 할일은 많은 기술을 연마하여 국민을 인식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고 또 위정자나 부유층에서 꼭 건축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일깨워 줄 임무가 필요 불가결하다 하겠습니다.



국가의 제도적인 개선책이 시급을 요한다.

윤정섭 건축사는 국가에서 법으로 보장을 받고 있는데 그 보장이란 것이 생활 문제까지 보장을 받는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으나 건축사가 정당한 일을 하므로써 이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아야 하는데 이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건축주들은 건축사에게 설제를 의뢰하는데 건축사협회에서 규정한 보수요율 대로 주려

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건축사 입장에서 일은 해야하고 보수는 제대로 못받는 일종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국가에서 건축주에 대한 강력한 법적 규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수문제 뿐만 아니라 기술문제에 있어서도 건축주가 건축사의 기술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좀 특수한 것을 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알아보는 등 이런 실정이나 사회에서 건축사가 아직까지 보장이 안되어 있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앞으로는 건축주와 건축사 사이에 전적으로 신임할 수 있는 보장이 하루 속히 와야 하겠습니다.

박윤성 건축사의 위치가 상당히 궁지에 빠졌다고 모두들 말씀하셨는데 우리들 자신도 반성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예로서 의사들을 보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보장 및 신임이 되어 있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윤택합니다. 학력이나 연구가 건축사와 별다른 것이 없는데도 건축사는 사회보장이 잘 안되어 있잖습니까. 건축법, 건축사법 등 법이 많은데 우리의 지위를 우리들 스스로가 떨어뜨리지 않나, 구멍가게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동문제 관계로 책을 잠깐 보니까 건축기술자 즉 노동자 부서가 신분이 보장 안되어 있어요. 역시 건축사도 동일합니다. 건축주와 설계자 간의 관계가 인격적이 못되고 건축주는 설계자를 피고용인으로 생각하는 형편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건축사가 사회의 봉사자나 지도자가 될 수 있나 이 방안을 모색하여 여기에 대한 대책을 협회나 기타에서 어떠한 운동을 일으켜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정덕 박선생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사회제도가 상당히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서 무한히 경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윤선생님 말씀대로 건축주에게 어떤 제제를 가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론 자유체제 하에서는 자유가 보장되는 것 만큼 넓고 복잡하게 제도화되어야 한다. 즉 모든 것이 법으로 규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건축사 자격을 갖지 않은 자는 누구도 간판을 달 수 없다 하는 제도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제도가 있다하더라도 제도의 운영이 엄해야 하며 세부적으로 확립이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의사의 오진으로 인한 결과와 건물 도피의 경우는

한정섭 박선생님이 말씀하신 의사의 경우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만일 의사가 오진을 할 경우 그 책임은 의사가 집니다. 그러나 건물이 도피되었을 경우는 당연히 설계자가 책임을 져야 하나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너무나 행정관청에 억눌려 있는 감이 많은데 이렇게 되니 대외적으로 신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실력 향상이 문제가 되며 자신이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박윤성 의사의 경우는 의사의 법적문제 보다 오히려 사회적 문제 즉 인식이 문제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지위도 좀 올려야 하겠습니다. 또 의학박사가 너무 많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으나 사실 실제로 우리나라 의학이 커다란 발전을 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권위를 올려 사회적으로 향상시킬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겠습니다.

유경철 건축현장에 감독을 하기 위하여 건축사가 나가야 할에도 불구하고 건축사 보조원이 나가는 것이 현실정이나 날림공사가 허다하며, 또 건축허가 관계도 허가제나 승인제나 문제가 있는데 이는 마땅히 승인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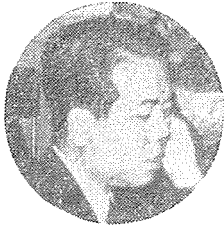
함정호 여러 선생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 역시 모두 동감입니다. 우선 건축사 자신이 건축에 대한 진지한 연구와 수업을 하므로써 건축주나 사회로부터 보장과 신임을 받을 수 있겠고 또 우리들 자신이 더 나은 건축물을 창조하므로써 건축계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건축사의 품위와 자질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건축주는 우선 비전문가에게 문의하니……

김만성 건축사의 입장에서 말씀하겠는데 윤선생님 말씀대로 건축주가 기술문제를 설계자 이외의 사람에게 다시 알아 보는 것 이것은 우리로선 좀 수치스러운 문제며 한편으로는 인내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은 단지 건축주의 무지로만 돌리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요는 그만큼 사회의 인식부족이며 결국은 건축주의 인식부족도 반성이 촉구되며 또한 우리도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정덕 제도문제에 대해서 더 보충할 말이 있는데 건축사들의 「더어터 플레이」로 많은 업무를 건축사 이외의 사람들에게 뺏기는 사례가 많고 또 건축사들끼리 서로 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를 도의적인 면으로만 돌려 우리들이 반성만 할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것을 바라다면 첫째로 정부에서 사ibi 건축사를 근절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건축사 상호 간의 더어티 플레이를 억제하는 어떤 강력한 제지조치, 즉 국가나 단체에서 건축사의 직을 향상시키는 건축 이외의 부분 즉 제도면에서 부

터 규율이 잡혀야지 저희들 자체의 반성만으로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법의 제정보다 운영의 묘가 중요하다고 보겠는데 건축사의 품위를 올려 사회의 신망을 얻자면 이전에 당면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우선 국회나 관계기관에 우리 건축사들이 진출을 해서 건축사의 의견을 대변하여야 할 것이고 또 건축사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건축사 설계업무를 맡아보는 북덕방, 대서방 등을 과감히 정리를 해야 하겠습니까. 협회에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아직 그 기능을 십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건축사의 설계비가 67, 68년도에 비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건축사업부보수요율은 올라가 있고 요율을 올리면 세금이 오르니 실지 설계비는 68년도 보다 69년도가 내려가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을 결성하여 운영해야 하겠고 또 사무실 평수를 제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게 시행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젠 법에 의한 조치를 할 때라고 봅니다.

박윤성 지명경쟁입찰의 경우 거기에 응했다면 법적으로 볼 때에 국가기관에서 시행한 입찰에 응했으니 합법화되는 것입니다. 건축사협회의 모랄로 볼 땐 안 될 일이지만 국가 방침에 순응한 것이 되니 이 경우 협회에서 자격을 박탈하면 박탈당한 사람이 소를 제기하면 협회가 불리할 것입니다.

최창규 우리나라 회계법에는 창작계약이란 항목이 없습니다. 명목상, 서류상으로는 납품 내지 용역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납품하고 납품 조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정법에 창작계약이란 항목이 생기기 전에는 수의계약도 정당치 못합니다. 현재도 수의 계약을 하고 있지만 납품수의계약이 아니라 용역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찰이란 것은 동일한 조건에 의해서 동일한 물건이 나올때 현장 설명이 가능한 것은 입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이란 것은 목적은 같을 수 있으나 나오는 형태가 동일하지 않고 틀리는데 어떻게 입찰을 할 수 있느냐 항의도 해보았습니다.

유경철 이런 사태를 막기위해서 공개현상 제도를 권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신한 신인의 발굴이라든지 여러가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도적인 개선과 자율만이

다음은 건축사의 업무 즉 실지로 당면하고 있는 업무면에 있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창규 건축사업무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가 알기에는 건축사법이 생기자 건설부장관이 각부처에 건축설계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옳다는 공문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해 왔습니다. 요즘 새로운 얘기로는 지명입찰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위층의 한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입찰 공고를 내면 반드시 건축사 중 배신한 한사람이 응모하는 경우가 꼭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 내고 있지요. 이런 사람을 윤리위원회를 통하여 강력히 제재를 가해야 하겠습니까.

한정섭 제 의견으로는 윤리위원을 통할 것 없이 건축사법에 의해서 제명을 하면 면허까지 박탈되니 강력

최창규 우리 인류가 좋은 건물, 좋은 작품을 구하려면 현상제도란 것이 있다. 왜 공개현상을 아니하고 입찰을 하느냐 하고 권유해 보았으나 거기에 대한 반응은 공고하고, 응모받고, 심사위원구성하고, 심사를 하고 발표하고, 상금을 주고 도저히 국가와 그 사업이 시간적으로 맞지 않으니 입찰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정덕 가능한 첨경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매스컴을 이용하든지 하여 한번 정도는 잊어버리기 쉬우니 파상적으로 여론화시켜야 하며 정부에 건의 및 호소, 성명 등 대정부 호소문 같은 것을 발표하면 어느 때 가서는 법제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함정호 현재는 매스컴이 최고로 발달되어 있는 시대이니 신문지상이나 여러 통신기구를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건축의 문제점, 시정해야 할 점 등등을 좌담회 형식이나 세미나로 형식으로 대중 사회에 진정할 건

축의 의의를 주입시켜야 하겠읍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을 테니 그 반응을 다시 검토 연구하여 다시 발표하고 부단히 노력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오리라 봅니다.



한정섭 넓은 의미에서 보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실이 전반적인 여론을 일으켜 인식을 시킨다는 것도 선진국에서나 가능하지 우리의 현실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몇 천평이나 되는 집을 간단히 한달 동안에 지으려 하는 현실성이죠. 계획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가능하게 해본다면 직접 건축관계자들, 국회의원이나 관청에 있는 사람들을 협회 고문으로 추대할 한다든지 하여 자꾸 주입을 시키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 다음은 외국의 경우를 좀 말씀해주시요.

최창규 외국에서는 국회의원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 업무 관계는 잘 모르겠으나 저작권 등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놀랄 정도로 인정해주는 것이 사실이며 레바논이나 시리아 같은 나라에서는 건축사협회에 소속해 있는 건축사는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한 대우를 가지며 현행법이 아니면 구속도 못하며 협회장의 승인 없이는 구속도 못할 정도의 높은 존경과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죠. 그렇다고 레바논이나 시리아가 우리 나라보다 선진국도 못됩니다. 국민이 건축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결과이지요.

윤정섭 이번에 미국의 저명한 대규모의 설계사무소인 S.O.M. 등을 가보았읍니다. 사무실의 규모라든가 사무원 수, 그기에 비치되어 있는 기계시설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더우기 컴퓨터까지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건축사는 비참한 현상이지요. 그들은 또 아무나 일을 맡겨도 하지않는 실정이지요. **이정덕** 일의 청탁이 있어도 하지 않을 정도로 부유하다는 것은 결국 건축사 이외의 사람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도 사이비 건축사만 정리되면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 불과 세사람이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곳도 많은데 모두들 훌륭히 일해나가고 있지요. 인원은 세사람 밖에 안되지만 다 건축사 자격이 있는 사회적인 높은 신망과 입장을 취하고 있으니까 그렇겠지요.

김만섭 현재 서울시지부의 지도부를 맡으면서 무뎠터대어 등을 감독 및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현행법으로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강제 규정 이러한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전통?

사회 좋은 의견을 발표해 주셨읍니다. 다음은 현대건축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 상당히 추상적인 말 같은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 시대의 바탕을 이룬 사상이라든가 정치체제 등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 양식이 변천되어 왔으리라 믿습니다만 저의 생각으로는 모던 메자인이란 몇사람 양심 있는 건축사들이 모여서 새로운 메자인 운동을 일으켜 붐을 일으킬 때 그 시대의 양식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궁극의 목적은 좋은 건물을 만든다는 것인데 그럼 만들어서 무엇을 하나 이렇게 되면 상당히 철학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건축이란 관찰의 학문이다, 표현의 학문이다, 등의 말이 있듯이 또 좋은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자와 건축주와 시공자 세사람의 호흡이 맞아야 한다는 것도 지당한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 건축의 양식이 이렇다 하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후세의 사가들이 한국의 현대건축의 양식이 어떻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주의, 풍토주의의 건축에서 요즘은 구조주의다 심지어는 우주주의란 말까지 나오는데 세계의 사조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움직여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윤정섭 현대건축의 거장이라 할 프르뷔제 같은 사람은 CIM운동을 일으켜 그것에서부터 기능의 실체화의 면에서 현대건축이 발전되어 온 것 같습니다. 이 운동 이후에 그것에 가담했던 젊은 건축가들이 그것에 어떤 회의를 느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인간적인 척도를 찾는 공간구성이라든지 또 어느 사람은 신진대사적인 메타폴리즘이란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현대건축양식이란 것은 프르뷔제 등이 일으킨 현대건축의 스타일파는 다른 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로칼칼러(풍토주의)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양식을 볼것 같으면 북고주의로 되돌아 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으며 마치 이것은 독일의 히틀러 나치스 정권시대의 나치주의에서 나온 나치 스타일 같은 것과 흡사한 점이 있습니다.

건축가 자신의 주관적인 자기 표현이 양식이 되겠지만 세계의 사조를 따라가야지 너무 고전주의 건축이나 복고주의나 고유한 한국의 양식을 찾는다는 것은 좀 모순되지 않나 봅니다.

박윤성 우리나라의 전통문제를 어떻게 다루나 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동안 내러온 전통적인 문제도 무시 못하며 또 국제적인 조류도 무시할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은 금물이라 보겠습니다. 너무 국제적 조류에 쫓아 모방을 한다든지 윤선생님이 말씀하신 너무 복고주의적으로 전통만 지키다 보면 조화(하모니)를 이룰 수 없게 되지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한국의 고유한 전통미도 되찾고 국제적인 조류에도 맞는 이러한 하모나이즈한 양식 및 공간 구성을 모색하느냐 하는 이것이 우리나라 건축사가 현재 처해 있는 사명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복고주의?...

최창규 과거 부여 박물관이 건축계에 많은 물의를 일으켰는데 저도 한번 가보았습니다. 가서 상당히 볼썽감을 느꼈습니다.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현대건축에 왜 국적을 붙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건축의 양식을 국민의 감정과 자부 결부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은 순수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신문에서는 부여기간 일본양식은 안된다 했는데 그러면 서울에서는 된다는 말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국민감정과 아카데미한 건축 양식이 이용을 당한다고 보겠습니다. 로칼리즘(풍토주의)은 요즈음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이유는 박선생님 말씀대로 고유의 하모나이즈한 양식을 만들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통이란 문제는 일본의 경우 약 8년 동안 연구를 해도 아직 전통을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전통은 무엇이나? 현재 위정자나 고위층 인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현대 건축의 양식이라는 것은 광화문이나 종합박물관이었습니다. 전부 복고주의의 방향으로 나간 것인데 이것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고건축이 우리나라의 전통이라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흐르는 정신, 얼, 우리를 피부로 느끼는 것 그것이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문화제가 우리 국민의 상징으로 모두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제가 우리의 상징은 될 수 없으니

다. 기실된 과거의 고건축과 건축의 양식을 혼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만성 현대건축의 양식이란 현실에 맞는 편리하고 과학적이어야 하겠습니다. 건축자료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검토 결과 얻어진 좋은 자료를 이용하여 좋은 시설의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한정섭 양식 자체의 얘기는 아니지만 현재 우리나라 건축사들은 너무 양식을 외모에만 치우치는 감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고니 국민소득, 국민의 경제력이 과연 외모에만 치우쳐 건축을 하는데 타당한가 하는 문제를 건축사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책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건축을 저렴하게만 하라는 것은 물론 아니지요. 현재 다른 많은 빌딩을 보면 별다른 특성이란 찾아 볼 수 없지요. **창작물을 별만한 종류의 건축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물관 같은 것이지요.** 경제적이고 편리한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건축사가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외부 사람한테 들은 것인데 서울에 있는 모 연구소 건물인데 연구소 건물 같은 것을 그렇게 복잡하게 많은 경비를 들여서 지을 필요가 있을지 저도 여기에 동감입니다. 또 그 건물이 창작물로 내놓을 만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좀더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건물을 디자인하는데 관심을 둘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최창규 저는 좀 다른 이견이 있습니다. 건축양식이라 하면 그것에 어떤 예술적인 무엇을 가미한 것을 말하는데 가장 편리하고 가장 경제적이고 하는 말을 건축 심리학상으로 볼 때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과학적으로 설계를 완전히 잘 해놓았다 하더라도 춘하추동 사계절이 있는 자연환경하고 결부시켜서 볼 때 외부온도와 실내온도 등을 비교해서 과연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현대건축은 예술적인 면에서 볼 때 현대건축이란 이미 목적이 아니라 필요 이전의 것이다. 공간을 조형하는 한 조형예술이



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위에서 말한 경제적이다, 경비가 많이 든다 하는 얘기는 좀 곤란해지는 것 같습니다.

윤정섭 저는 생각하기를 건물이란 개성이 있어야 한다. 자동차와 같이 기계의 조립으로 완성되는 것은 디자인이 필요 없으며 개성이 있으면서도 어느 시대의 제약이나 기후의 제약을 받는 것이 건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정섭 양식 그 자체를 논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축사로서 자기의 기본 노력도 없이 창작이라 하여 돈만 많이 들여 별로 이용가치 없는 빌딩을 설계하는 이런 것은 비판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이정덕 서양건축사와 동양건축사를 일독해보면 건축양식이란 것이 일종의 유행가적이라고 할까 경험 못해 본 것은 경험해볼려는 인간의 본성이라 하겠습니다. 지역성 문제도 나왔지만 2차 세계 대전 후 남의 나라 것을 알려는 의욕이 미국 사람들에게 상당히 강했습니다. 미국은 신생국이니 전통같은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정원건축같은 것은 일본이 제일 훌륭하다 하여 일본 정원사를 미국에 많이 불러들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고건축의 복원이란든지 또 사열대같은 것에 단청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건축양식의 조류에 좋은 방향과 나쁜 방향이 있는데 나쁜 방향은 우리나라 스타일에 필요한 것에만 고유한 스타일을 넣지않고 아무데나 넣으려고 하며 고유한 우리의 것을 넣으려고

생각한 사람은 우리나라 것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해야하며 또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것이 고유한가 아닌가 또 그것이 고유하다 해도 가치가 있나 없나를 판단하여 과감히 버릴 것은 버리고 하는 것이 현대건축양식을 향한 자세라 하겠습니다. 좋은 점은 건축의 외향처리 같은 것을 볼 때 확실히 모방을 싫어하는 작가의 개성, 특성을 살리려는 창작성이 뚜렷하게 엿보입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가령 유명한 전위적인 건축가가 한 수법을 모두가 따라가는 경향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이루어진 것은 될수 있는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며 비평적이지요. 일본 사람들 보다는 우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축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할 수 없겠습니다. 양식의 다양화, 자유스러운 개성의 발표 이런 것이 규정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회 장시간에 걸쳐서 현대건축의 양식과, 건축사의 창작활동에 대하여서 여러 선생님들의 좋은 의견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특히 저명한 선진국의 건축의 동향과 현황에 대해서 좋은 자료를 발표해 주셨으며 우리 나라의 현 건축실태 등 다양한 면에서 선진국과 비교해 주셔서 뒤떨어진 건축기술향상에 매진할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좌담회의 결과는 앞으로 우리 건축계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자료와 길잡이가 될것을 확신하면서 건축사의 질적 내지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이 좌담회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冷暖房 衛生設備

설비설계 상담

경제적인 시공감리



동우기업사

서울特別市鍾路区鍾路六街267

덕성빌딩 307号室電話 (74)2181番

